

2021년 추수 감사절 특별 집회 표어

신성한 삼일성 안에 사는 것은 우리의 집이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머물며, 그분 안에 거주하는 것이다.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사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분의 임재 곧 그분의 인격을 소유하는 것이다.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사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이다.
부활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우리는 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살 수 있으며,
이 공급에 의해 우리는 모든 환경에서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신성한 삼일성을 충만히 체험하고 누리는 것,
곧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에 참여하는 것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과
'일곱 영'과 '신실한 증인이시자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된다.